

# 세종대왕의 효행 연구\*

조 남 욱\*\*

< 목 차 >

|                        |                 |
|------------------------|-----------------|
| I. 서론                  | 2. 군왕으로서의 형님 존경 |
| II. 세종 효행의 배경          | 1) 양녕대군 보호      |
| 1. 부왕의 부부불화            | 2) 효령대군 존경      |
| 2. 효행 과제로서의 부모공경과 형제우애 | IV. 세종 효행의 특징   |
| III. 세종 효행의 실제         | V. 결론           |
| 1. 부모공경의 행실            | 참고문헌            |
| 1) 모후 공경               |                 |
| 2) 부왕 공경               |                 |

## 국문초록

1397년 태조 이성계의 5남 이방원과 부인 민씨 사이에서 태어난 충녕대군 세종은 조선조의 성군으로 유명하다. 그의 성군정치 발현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할 수 있지만 특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마음이 한시도 잊지 않는 효심의 측면이 간과될 수 없다. 그 깊은 효심으로 말미암아 왕자시절에는 왕자다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게 하였고 또 군왕이 되어서는 군왕다움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효행 배경으로서의 부왕과 모후 관계는 순탄치 못했고, 또 부모가 바라는 형제 우애의 환경 역시 안정적이지 못했다. 태종은 미래의 왕권 확보를 위해 처남 4인을 모두 제거하는 정치적 결단을 보였고, 충녕대군 세종은 장형 양녕대군의 세자 자리에 오르면서 곧바로 군주가 되는 격변의 상황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종은 어려서부터 보였던 부모 공경의 행실에 변함이 없었으며, 신하들이 끈질기게 추구하는 두 형과의 분리운동에도 하등 동요됨이 없는 우애의 길을 걸었다. 그리하여 세종은 부모에 대한 직접적인 효행은 물론, 부모가 걱정하던 형제 분란의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그 간접적인 효행의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었다. 그러한 효심의 구현은, 마침내 신하들이 우려하던 정정불안의 차원을 넘어 어진 정치전개의 원천으로서, 또 도덕적 정치문화 발전의 기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맥락을 따라 『조선왕조실록』을 근거로 그 각각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세종 효심의 열정은 타고난 총명성과 호학의 과정에서 확장되었다는 점, 그 효행의 실상은 유교 고전에서 논하는 효자의 원형으로 평가된다는 점, 및 그의 효행은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 또는 정파나 이권을 넘어서는 본심의 초월적 차원에서 지향되는 절대적 성격의 것이었다는 점을 밝혀 보았다.

주요어: 세종대왕, 세종 효행, 태종, 세종 모후, 태현론, 양녕대군, 효령대군, 성녕대군, 역월(易月) 제도, 우애.

\* 이 논문은 2012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namukcho@hanmail.net)

## I. 서론

과거 전통사회의 정치형태가 왕조체제였음을 주목하면 그 정치안정 문제는 바로 왕실 구성원의 유대관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밖으로는 적장자(嫡長子) 세습군주제가 당연시되었고, 안으로는 효도와 우애의 덕목이 중시되었다. ‘정치란 바로잡아가는 것임 [政者 正也]’을 천명한 공자가 특히 정치전개의 기본으로 효도와 우애를 강조했던 것도<sup>1)</sup> 바로 그러한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선왕으로서의 부모를 간과하는 군주는 부자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쉽게 되는 것이요, 또 왕자들 사이의 우애 상실은 왕자의 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로 그러한 현상이 유교적 도덕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던 조선왕조 초기의 정치현장에서 나타나고 말았다. 그 중심에는 세종대왕<sup>2)</sup>의 부친인 태종<sup>3)</sup>이 있었다. 그는 어린 이복동생에게 세자가 이어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고, 또 박포 등의 농간에서 비롯한 형 방간의 공격을 당할 수만은 없어서 싸움을 벌인 끝에 모두 성공한 인물이다. 그로 인하여 부왕 태조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지만 마침내 형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조선조 제4대 군주가 되었다.

태종은 특히 유교를 중시하며 여러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하다가 그 18년이 지날 무렵에는 14년간 세자로 삼아온 장자 양녕대군<sup>4)</sup>의 비행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3남인 충녕대군으로 교체시키는 정치적 결단을 감행했다. 또 그 이전에는 앞날의 왕실안정 수호 차원에서 처남 4인을 모두 제거하는 용단을 보이면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겪은 형제간의 싸움과 같은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하기도 했다.<sup>5)</sup> 또 스스로 상왕으로 물러나는 특이함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차형 효령대군<sup>6)</sup>을 넘어 갑자기 세자가 되고 또 그 2개월 만에 왕위를 물

1) 『논어』『위정(爲政)』: “혹자가 공자에게 ‘선생님은 어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니, 공자는 ‘『서경』에 효를 일컬었음이여, 오직 효도하고 형제에 우애하여 정사에 펼친다 했으니, 이 또한 정치일진대 어찌 그 정치행정을 하는 것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 子曰 書云孝乎 唯孝 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

2) 태종 이방원의 3남으로 이름은 도(禔), 군호는 충녕군(忠寧君), 자는 원정(元正), 부인은 심온의 딸 소현왕후, 시호는 장헌(莊憲). 생존기간: 1397~1450. 재위기간: 1418~1450.

3) 태조 이성계의 제5남으로 이름은 방원(芳遠), 군호는 정안군(靖安君), 자는 유덕(遺德), 시호는 성덕신공문무광효(聖德神攻文武光孝). 생존기간: 1367~1422. 재위기간: 1400~1418.

4) 태종의 장남으로 이름은 제(提), 자는 후백(厚伯), 군호는 양녕군(讓寧君). 1404년 11세 때 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418년 폐위됨. 사냥과 유희를 좋아했으며 부인은 김한로의 딸, 시호는 강정(剛靖). 생존기간: 1394~1462.

5) 조남욱, 『조선조 유교 정치문화』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2008.) pp.135~145.

6) 태종의 차남으로 이름은 호(祜)에서 보(補)로 고침, 자는 선숙(善叔), 호는 연강(蓮江). 불교를 좋아했으며 시호는 정효(靖孝). 생존기간: 1396~1486.

러받은 22세의 세종에게는, 올바른 국정운영의 과제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군주로서 거듭나야 할 과제, 그리고 부단히 나타나는 양녕대군 배척운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 문제 등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왕과 모후(母后)<sup>7)</sup>에 대하여 지극 정성을 다하며 형제관계를 원만히 유지하여 정국의 안정은 물론 과거에서 보기 어려운 인간 존중의 정치문화를 선도해가고 있었다. 그러한 동력은 어디에서 비롯하는 것이었을까?

이 논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 핵심으로서 세종 효행의 구체적 내용을 주목해 보려는 것이다. 이것은 ‘효도와 우애는 어진이가 되는 기본’이라는 성현의 인생론<sup>8)</sup>과 성격을 같이하는 것이기도 하다. 세종이 지향하던 인정(仁政) 구현의 저변에서는 ‘부모 공경과 섬김으로서의 효’<sup>9)</sup>, 그리고 형제에 대한 우애심이 하나의 동일맥락을 이루면서 부단히 작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충녕대군 세종의 효행에서 곡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갑자기 등장한 세자교체 사건이다. 그것은 부왕 태종의 결단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의 모후 대비는 오히려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장자 양녕대군이 14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세자로 있으면서 졸지에 폐위된다면 그 후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충녕대군이 현명하다지만 여러 정치세력을 조율하면서 형제간의 불안한 상황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 때문에 논물의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기우에 지나지 않게 여길 만큼 세종은 인간 심성의 깊은 곳에 흐르는 애정을 드러내면서 여러 난제들을 원만히 해결해가는 능력을 보였다.

그러한 사실은 『태종실록』과 『세종실록』의 곳곳에 산재해 있다. 그리하여 필자는 그 실록을 상세히 검토 분석하면서 기존의 여러 연구물들을 참고 자료로 삼아 이 글을 완성하였다. 그 서술의 기본 틀로서는, 세종 효행이 전개되는 배경으로서의 부모 상황으로부터 왕실 형제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 안전성의 문제를 살핀 연후에 세종 효행의 실제와 그 전체적인 평가로서의 특징적 요소를 밝혀보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7) 세종의 모친 원경왕후로서, 여흥민씨 민제(閔霽)의 딸로 태어나 1382년 이방원과 결혼하고 제1차왕자의 난 때 남편을 크게 도왔다. 세자빈 때의 작호는 정빈(貞嬪), 왕비 때의 작호는 정비(靜妃). 생존기간: 1365~1420.

8) 『논어』 『학이(學而)』: “유자 이르기를 … 효도하고 공경함이 어질게 되는 기본이다. (有子曰 … 孝弟也者其爲仁之本與.)”

9) 위 문장에서의 주자주(朱子註):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효도이고, 형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이 아우다움이다.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爲弟.)”

『논어』 『위정(爲政)』: “자유가 효를 물으니, 공자는 ‘오늘날 효란 먹여드리는 것만 이르는데, 개나 말에게도 모두 먹이는 바 있으니, 공경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구별되리?’라고 말했다. (子游 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有能養 不敬何以別乎.)”

## II. 세종 효행의 배경

### 1. 부왕의 부부불화

세종의 효행을 살피는 과정에서 먼저 부왕의 모습을 주목하는 것은 그 실천적인 배경이 매우 특이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태조 이성계의 제5남으로 태어난 세종의 부왕 태종은 조선 건국의 혁명과정에서 여러 왕자들 가운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부모 공경의 효심 또한 깊었다. 그러나 제1·2차 왕자의 난을 거치면서 부왕 이태조와의 관계에서는 ‘함흥차사(咸興差使)’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겪게 되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부왕 존경에의 심성에는 변함이 없었으므로 끝까지 과거의 돌발적 사건에 이해를 구하면서 잘 모시고자 애썼다.

그가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은 1400년은 세종의 나이 4세가 되는 해이다. 그런데 그 부왕 태종은 부인 민씨 집안의 도움을 받고 또 부인 정비(靜妃)의 공이 높았다고 칭송하면서도<sup>10)</sup> 부부 관계는 점점 원만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왕자들로 하여금 어려운 분위기로 작용하기 마련이었지만, 왕권의 절대 신성성을 확보해가는 차원에서 태종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여긴 듯하다.

이제 그 주요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 하나는, 태종이 궁인을 가까이하고 후궁을 두려는 것으로부터의 불화이다. 태종은 즉위 2개월 후 부인 민씨를 정빈(貞嬪)에서 정비(靜妃)로 봉하는 의식을 엄정히 거행함으로써 정식으로 왕비의 위상을 높였다. 그런데 그 5개월 뒤에는 왕비를 모시던 시녀와 환관 20여인을 내쳤는데, 그 이유는 왕비의 궁인 혈문 사건 때문이었다.<sup>11)</sup> 이로 말미암아 부부의 정은 손상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태종은 또 수개월이 지나자 왕의 빈첩 문제에 있어서 정식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후 9인’의 고례(古禮)를 따르게 했다.<sup>12)</sup> 그러나 ‘투기적이었다.’는 평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만의 남편이어야 할 태종에게 여러 여인을 둔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사안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은 부인 정비의 심정에 구애됨이 없다는 듯이 여러 여인을 두었다. 이로 말미암아 왕비의 생모 송씨는 걱정하고 정비 또

10) 태종이 『고려사』를 보다가 세종에게 “네 모후의 공적은 고려 왕건의 비(妃)에 비하면 더욱 크다.”라고 말하며 왕자의 난 때 협력의 공이 컸던 사실을 회고하는가 하면(태종 1년 1월 10일(庚午)), 부원군 민제(閔霽)의 집에 가서는 “내가 어렸을 때 민씨 집에 자라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로(『태종실록』 5년 12월 13일(乙亥)), 그 인연의 깊이를 확인해 주었다.

11) 『태종실록』 권1, 1년 6월 18일(乙亥)

\* 이후의 각주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의 각 위치 표시로서 ‘왕명과 연 월 일(간지)’의 형태로 표기한다.

12) 태종 2년 1월 8일(辛卯)

한 크게 울부짖는 양상을 보였다.<sup>13)</sup> 이처럼 부부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태종의 처남 4인에 대한 불충 처형 사건<sup>14)</sup>에서 비롯한 부부불화이다. 1406년 태종의 제1차 왕위 이양 시도를 계기로 불거진 민무구·민무질 형제의 불충 논의가 깊어지던 다음해 겨울에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된다. 태종이 궁궐 밖을 나서는 강무 행사 때 왕비는 은밀히 민무질의 아내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밀담한 일이 발각된 것이다. 그 때 태종은 그 밀행의 연루자를 찾아 처벌하면서 지신사 황희에게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내가 일찍이 아내 중전에게 민무구 등의 불충한 음모와 앞날에 대해 거듭 깨우쳐 말하니, 중전은 모두 잘 알고 이를 갈며 절대로 구하여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이르기를, ‘부모님 생전에 나 보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부인의 인정에 차마 갑자기 끊지 못하고 지금 강무의 틈을 타 몰래 민무질의 아내를 불러 궁중에 출입시켰다. 그 사이의 상황을 추측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깊이 생각해도 그 묘안을 얻지 못하겠다. 내시 한둘과 시녀만 두어 거들게 하고 나는 경복궁으로 옮겨서 누우치고 깨닫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폐위하여 버리지는 않겠다.”<sup>15)</sup>

태종은 왕비가 아내답지 못한 행태로서 그렇게 배신감까지 낳게 하니 일정한 간격을 두어 깨우치게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황희의 만류로 그렇게 별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그의 마음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1410년 즉 세종 14세 때에는 조정 대신들로부터 외숙 민무구 형제에 대한 불충 처형의 상소가 극에 이르자, 태종은 부인의 심경을 의식하여 지금껏 결단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제주에 유배중인 그들에게 스스로 죽으라는 자결의 명령을 내렸다.<sup>16)</sup> 이러한 충격으로 세종의 모후 정비는 병을 앓게 되고, 또 이를 안 두 남동생 민무홀·민무회 형제가 입궐하면서 세자 양녕대군에게 두 형의 죽음이 억울한 것임을 호소하기도 했다. 결국은 그들도 1415년 이른바 ‘비(裋)의 참고사건(慘苦事件)’<sup>17)</sup>의 공초에서 다시 두 형의 무죄를 항변하다가 곧 자진(自盡) 당하게 되었다. 결국 그렇게 4형제 모두 제거됨으로써 세종의 모후 정비는 남편 태종에 의해 동생 모두를 잃는 설움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 어떠한 부부화

13) 태종 2년 3월 7일(庚寅) : “임금이 성균악정 권흥의 딸을 별궁으로 맞아들였다. 처음에 대부인 송씨가 정비에게 ‘궁빈이 너무 많아서 점점 두렵게 된다.’고 말했고, 정비의 투기는 더욱 심해졌다. 임금이 권씨에게 어진 행실이 있다 하여 예를 갖추어 맞으려하자, 정비는 임금의 옷을 잡고 울며 말하기를, ‘상감께서는 어찌하여 예전의 뜻을 잊으십니까? 제가 상감과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으며 국가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렀습니까?’하며 그치지 아니하고 음식도 들지 않았다. … 정비는 마음에 병을 얻었고, 임금은 수일 동안 정사를 보지 않았다.”

14) 김성준, 『태종의 외척 제거에 대하여』 『역사학보』 17-18합집, (역사학회, pp. 571~623.)

15) 태종 7년 11월 10일(庚申)

16) 태종 10년 3월 17일(癸未)

17) 1402년 12월 세종의 이복동생 비(裋)가 태어날 때에 중전이 시기하여 그 모자를 죽이려고 추운 곳에 방치했다는 사건.

목을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며, 자식으로서의 세종 또한 상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 2. 효행 과제로서의 부모공경과 형제우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효행이라고 할 때, 그 공경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논의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직접 자식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 경우에는 그 실천이 곧 부모공경의 핵심과제로 이어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세종에 있어서의 형제간 우애 문제는 크게 대두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권력관계가 예민하게 작용하는 정치 현실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쉽지 않으니 문제이다. 이러한 점은 세종의 부왕 태종이 몸소 겪은 바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 아들들에 있어서만은 그러한 일이 결코 있어나서는 안될 것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처남 민무구 등으로부터는 그러한 과제가 원만히 보장될 수 없겠다는 김새를 느끼고서 큰 고민에 빠지게 된다. 그리하여 그는 아들 4형제 모두를 불러서 눈물로 가르치기에 이르렀다. 그 장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세자와 효령군, 충녕군, 어린 아들 중(種)을 불러 놓고 화목의 도리를 가르쳤다. 말을 마치자 곧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대개 처남 민씨가 일찍이 세자 이외의 아들들을 없애려는 뜻을 가졌던 데에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다. 황희에게 이르기를 ‘자네는 나의 옛 신하이니 나의 뜻을 미루어 알 것이다.’라고 하니, 세자 이하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황희가 물러갈 때 임금이 세자에게 문밖까지 전송 하도록 하였다. 황희가 세자에게 말하기를 ‘오늘 부왕께서 가르치신 의미를 잊지 않는 것이 실로 조선 만세의 복이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sup>18)</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자식으로서의 부모공경이라는 과제는 곧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여 화목하게 지내는 일로서 해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형제간에 우애롭지 못한 것은 곧 부모의 절실한 기대를 저버리는 불효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태종은 과거 왕자의 난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특히 왕자들 사이의 우애와 화평한 삶이란 그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일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권력의식에 민감한 자가 주변에서 발호하면 그 또한 보장되기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위 인용문에서 보이는 ‘태종의 눈물’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부인이 상심할 충격적 상황을 읽으면서도 결국은 그 처남들을 불충의 죄로 다스리는 데에까지 이른 것이다.

태종이 어린 왕자까지 불러 놓고 형제간 화목을 눈물로 호소하던 약 4개월 이후의 기록<sup>19)</sup>에 의하면 왕자 불안에의 여러 가지 의구심을 뚜렷이 보이고 있었다. 즉 세자교육 담당관인

18) 태종 9년 5월 19일(庚寅)

19) 태종 9년 9월 4일(癸酉)

김과를 향해서는 그가 작업한 『대학연의(大學衍義)』 선집의 경우 성이 다른 일가들에 관한 사례를 제외시킨 점을 발견하고, 이는 외척들로 하여금 겸손과 공경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것임과 동시에 저 민씨 일당을 두려워한 소행으로 비판하면서 그 저의를 따져 물었고, 또 세자의 장인 김한로를 향해서는 “세자가 만일 여러 아들을 낳으면 당신의 마음은 어떻게겠는가?”라고 물으면서 세자 이외의 자식들에 대한 안전의식을 공유하고자 애쓰는 면을 보였으며, 또 좌대언 김여지를 향해서는 “지금 민씨의 무리가 내가 간사한 거짓말을 듣는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의 자식에서 오직 장자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다 죽여야 옳은 것이냐?”고 말하면서 세자 양녕대군의 아우들에 대한 위해 분위기를 조성할 문제를 핵심으로 적시하고 있었다.

태종은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이 겪었던 바와 같은 왕자 사이의 갈등이나 싸움이 결단코 재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가 강했다. 그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정으로서 뿐만 아니라 왕조 영속을 위한 왕실의 안정이나 평화적 국정운영의 그 어느 측면에서도 긴요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왕자들의 안전성 확보의 문제의식은 세종의 모후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 그 실례는, 어린 성녕대군<sup>20</sup>과 사별하여 눈물로 살아가는 슬픔 속에 세자교체의 문제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다.

1418년 6월 초 양녕대군 세자 교체의 일에는 임금과 신하가 공감하던 분위기에서 그 후임자를 선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갈래로 갈라졌다. 하나는 세자의 5살이 되는 장자로서 이어가게 하자는 주장과 또 하나는 왕자들 가운데 가장 어린 자를 선택하자는 ‘택현론(擇賢論)’<sup>21</sup>에 따르자는 주장이었다.

이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점을 쳐보자는 의견까지 대두되었다. 이에 대하여 태종은 동의하는 척하면서 부인 왕비에게는 택현의 입장을 밝히고 있었다. 이를 들던 왕비는 “형을 폐위하고 아우를 세우는 것은 화란의 근원이 됩니다.”라고 반대하니, 태종 역시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sup>22</sup>

그러한 위험 상황은 서로 이미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는 결국 택현의 길이 정당한 것임을 천명하면서 마침내 여러 신하들과 흔쾌히 합의하여 3남 충녕대군으로 양녕대군 세자의 자리를 교체시키는 대업을 결행했다.

이로 말미암아 세 아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예감이 현실화됨으로써 세종 모

20) 태종의 제4남으로 이름은 종(種), 군호는 성녕군(誠寧君), 총명하고 단정하여 부왕의 총애를 받음. 생존기간: 1405~1418.

21) ‘택현(擇賢)’이란, 왕의 장남이 불초하면 그 아우들 가운데 가장 어린 자를 택하여 후계자로 삼는다는 의미로서, 태종은 중국 주(周)나라 문왕이 장자 백읍고(伯邑考)가 있는데도 차자[무왕]에게 진위한 것을 선례로 들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고려 왕건의 ‘훈요십조’ 제3조에서도 명시되어 있다.

22) 태종 18년 6월 3일(壬午)

후의 심경은 더욱 참담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매일 눈물을 보였으니, 거기에는 세자에서 폐위된 맏아들 양녕대군에 대한 사랑의 모정(母情)도 살아있었기에 때문이다.

그처럼 애절한 모습을 보던 상왕 태종은 왕위를 물려준 20일 후 ‘대비가 양녕을 보고 싶어 한다.’고 밝히면서 곧 그를 불러들여 새로운 임금과 함께 만나 볼 수 있도록 했다.<sup>23)</sup> 그러나 대간을 비롯한 대신들의 만류로 당장은 보지 못하게 되니, 그 모후의 애통함은 더 깊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충녕대군이 세자에 오르고 마침내 즉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모후의 기쁨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록에 미루어 보아도 알 수 있다.

한편 태종은 상왕으로 오르면서 새로운 군주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해 주는 것이 남은 과제로 인식되었다. 그리하여 왕위를 물려준 다음 달 세종의 창덕궁 입궐을 축하하여 즉근 대신들과 짝은 주연을 가졌다. 그 때 춤을 추면서 하는 말은 이러했다.

“내가 내전에 들어가고자 하나, 정비가 슬픔이 지나쳐 병을 얻었으니, 내가 잠시라도 경들과 함께하여 슬픔을 놓아보려 한다.”<sup>24)</sup>

여기서 우리는 태종이 충녕대군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자를 거쳐 왕위에 오르게 한 것을 국가운영의 큰 성공으로 자평하면서 기뻐하는 감회와는 달리 그 부인에 있어서는 거꾸로 병이 날 정도로 심상이 불편해지고 있었다는 점을 읽을 수 있다. 세종이 군주로 있는 한은 그러한 분위기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모습이다.

세종 즉위 3개월째 되는 시기에 부왕에게는 ‘성덕신공상왕(聖德神功上王)’이라는 존호를, 또 모후에게는 ‘후덕왕대비(厚德王大妃)’라는 존호를 올리는 뜻 깊은 의식을 거행하였다. 그 뒤 궁궐에서는 또 대신들과 흥겨운 축하연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에서도 부왕은 말하기를 “내가 주상과 함께 내전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먼저 눈물을 보일 것이니, 경들과 함께 즐기는 것이 기쁨 뿐이다.”라고 하였다.<sup>25)</sup> 이처럼 세종의 즉위는 그 모후에게 눈물을 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 이후 세종 효행의 실상을 논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이 서로 다른 부왕과 모후의 심경이 간과될 수 없게 된다. 또한 어제의 세자 장형에 대한 신하들의 거센 배척운동에 맞서 과연 그 효행의 맥락으로 형제우애의 길을 걸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23) 세종 즉위년 8월 30일(丁未)

24) 세종 즉위년 9월 16일(癸亥)

25) 세종 즉위년 11월 8일(甲寅)



### Ⅲ. 세종 효행의 실제

#### 1. 부모공경의 행실

##### 1) 모후 공경

이제 앞에서 확인한 왕실의 상황을 따라 세종 효행의 실제적인 모습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은 먼저 별세한 모후의 경우이다.

1418년 22세의 나이로 즉위하는 세종은, 그동안 부왕의 왕권 확보 차원에서 외숙 4인이 제거되는 과정과 그로 인한 모후의 설움, 그리고 후궁 문제와 갑작스런 세자교체 사건으로 심화된 부왕과 모후의 불화 및 그 후 왕자들에 대한 기대 등등을 직접 보고 또 몸소 느껴왔다. 그리하여 ‘이제 임금으로서 국가와 부모 및 형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며 그 바른 길을 걷기 위하여 진심으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즉 매일같이 부왕을 찾아 국정을 여쭙고 경연을 활성화하며 모후에 문안드려 마음을 안정시키고 두 형님에 대하여 미안함과 존경심을 잊지 않는 태도를 견지해 갔던 것이다.

그와 같은 성심을 포괄적으로 담아내는 큰 모습은 세종이 즉위하여 처음으로 맞이하는 모후의 생신 때에 나타났다. 세종은 부인 공비와 함께 모후가 계신 수강궁에 가서 옷감과 술상을 올리며 봉축하고 외할머님 송씨도 모시고 궁주 등이 함께하여 잔치하도록 했으며, 선양정에서는 부왕에게 술을 오리며 종친들과 대신들에 잔치를 베풀어 모두 춤을 추며 마음껏 즐기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 자리에는 양녕대군도 함께 하였다.<sup>26)</sup> 세자에서 폐위되고 격리되어 모후의 눈물을 더하게 했던 양녕대군으로 하여금 그 축연의 자리에 참석하게 한 것은, 형님 존경의 의미와 더불어 부왕과 모후의 아들사랑을 적극 반영하는 효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었다. 세종은 그 이후에도 그러한 심기를 부단히 나타내어 군주이면서도 아들다움과 아우다움의 바른 길을 걸으면서 왕실내의 화목한 분위기 조성을 선도하였다.

그런데 세종 2년 5월에는 모후께서 갑자기 학질(瘧疾)을 얻어 비상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 발병 후 10일째의 실록에는 부왕 태종의 말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내가 대비와 주상이 간 곳을 몰랐는데, 오늘에야 알고 보니 주상이 대비의 학질을 걱정하여 몸소 필부의 행동을 하며 말을 타고 두 명의 내시만을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나가 피신시켜 병 떼어 버리기를 꾀하니, 내가 그 효성을 매우 아름답게 여긴다.”<sup>27)</sup>

26) 세종 1년 7월 11일(甲寅)

27) 세종 2년 6월 7일(甲辰)

부왕도 모르게 진행하던 모친 공경과 치병 구완에의 모습이 ‘효행의 이름’으로 치하되고 있는 장면이다. 그 학질에 대한 당시의 의술에는 어떠한 물리적인 치료법이 없어서 거처를 옮겨 주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피접(避接)’의 방법이 강구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세종은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을 불러 함께 모시며 도교적 성격의 둔갑술까지 동원하여 치병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지만<sup>28)</sup>, 병은 오히려 심해 갔다. 그 며칠 후에는 모후 대비의 뜻을 따라 별을 향해 기원하는 제사의식을 거행하는데, 세종은 식사도 하지 않으며 노심초사 안색이 초췌해짐에 따라 부왕의 걱정을 듣게 되었음에도 문을 닫고 모후를 모시니 형들이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한다.<sup>29)</sup> 그 뒤에도 그는 밤중에 모후를 모시고 남쪽 교외로 나아가 도류승(道流僧) 을유(乙乳) 등으로 하여금 치병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sup>30)</sup>

그러한 피접 구명활동을 계속한 지 수일이 지나면서는 마침내 병이 나아지는 현상을 보기도 하는데, 실록에 전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임금이 대비를 모시고 선암 아래 넷가로 행차를 옮겨서 무당으로 하여금 임금의 장막에서 신에게 제사하게 하였다. 새벽에 임금이 몇 사람만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조용히 동소문으로 들어와 흥덕사에 행차를 정하니, 두 대군은 도보로 따랐다. 시종자들은 임금의 간 곳을 잃어, 동대문 밖 안암동에 이르러 헛되이 장막을 설치하고 시위하다가, 해가 저물어 다 성안으로 돌아왔다. 이날 대비의 병환이 나았는데, 이로부터 밤마다 행차를 옮겨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sup>31)</sup>

계속하던 은밀한 야밤 피접 기도활동으로 인하여 고대하던 쾌유의 효과를 보는 장면이다. 이때의 세종 심경은 기쁘기 그지없었을 것이요, 모후의 경우 또한 그 지극 정성에 감복하면서 세종을 따르는 두 왕자들을 보고 안도했을 것이다. 즉 왕자들 사이의 화란 발생을 우려하여 세자교체를 반대하던 모후의 마음은 그간의 세종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한편, 그와 같이 직접 모시고 옮겨 다니는 일이 계속됨으로써 국정공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직시하던 부왕 태종은 환관 노희봉을 보내어 이제 창덕궁에 들어와 국정을 보면서 모후에 문안 왕래할 것을 지시하였다.<sup>32)</sup> 그런데 그로부터 5일 되던 날에 모후는 다시 발병하여 위급 상황에 이르다가 곧 56세의 나이로 별세하였다. 그토록 지극 정성으로 온갖 노력을 다했건만 결국은 사별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 당시의 세종 모습이 실록에 전하듯이<sup>33)</sup> 그 비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28) 세종 2년 6월 10일(丁未)

29) 세종 2년 6월 14일(辛亥), 그런데 당일 병환이 호전되어 죽을 드실 정도가 되니 세종은 기뻐하며 식사하고 시녀에게 옷을 하사하기도 했다.

30) 세종 2년 6월 21일(戊午)

31) 세종 2년 6월 26일(癸亥)

32) 세종 2년 7월 2일(戊辰)

그리하여 세종은 그 모후의 혼령에 대해서도 편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한 고민은 묘소 옆에 절을 지어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문제는 생각이 다른 부왕의 반대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sup>34)</sup> 먼 훗날 결국은 내불당 건립의 방식으로 관철해 나갔다. 세종에 있어서의 부모 공경은 유교적인 의례 형식으로뿐만 아니라 불교적 측면으로서도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sup>35)</sup>

그리고 세종의 남다른 효심은 모후에 대한 상례제도의 재확인으로도 나타났다. 그 실체를 보면 다음과 같다.

“임금이 허조와 변계량을 불러 말하기를 ‘내 들으니, 나로 하여금 역월지제(易月之制)를 행하여 13일만에 복을 벗으라 한다는데 참말인가? 이것이 송나라 제도이지만 나는 일찍이 이는 야박한 행위라 했는데, 지금 나에게 이를 행하라 하느냐.’고 했다. 허조가 아뢰기를 “어머니를 위하여 기년복 입는 것은 『예기』에 적혀 있고, 역월지제는 행한 지 이미 오래이며 또 선왕 태종께서 밝힌 뜻을 받아 이미 상제로 정했습니다.”고 말했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면 나는 장례 후에 최질(衰絰)을 벗을 것이니, 백관들은 13일만에 최복을 벗고 백의·오사모로 바꿈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허조가 눈물 흘리며 아뢰기를, ‘말씀이 지극하신데 저희들이 어찌 감히 다시 아뢰오리까. 백관들도 역시 마땅히 장례 후에 최복을 벗도록 하겠습니까.’”<sup>36)</sup>

부왕과 논의하여 정하던 모후에 대한 상례제도를 확인하면서 특히 ‘달을 날로 바꿔 치르는 역월지제(易月之制)’<sup>37)</sup>의 획일적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세종이 이미 그것을 ‘야박한 것’이라고 평가하는 데에서 우리는 그 전래가 비록 오랜 것이라 하더라도 보모를 향한 슬픔의 정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고 보는 효성이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한 마음은 부왕 태종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신하들의 경우에는 약간 조정하도록 하면서도, 세종 자신에 대하여 새로이 제시한 모후 장례<sup>38)</sup> 이후의 탈복 방안은 그대로 수궁하게 되

33) 세종 2년 7월 10일(丙子) : “모든 범절을 고례(古禮)에 따라 한 결 같이 하고, 임금은 옷을 갈아입고 발 벗고 부르짖으며 통곡하였다. 상왕이 거적자리에 나가 임금께 미음을 전했다. 임금이 식사하지 않은 지 수일이 되니 상왕이 눈물 흘려 울면서 권했다.”

34) 세종 2년 7월 11일(丁丑) : “임금이 말하기를 ‘부처 거짓은 내 알지 못함이 아니라, 다만 능소 모신 후에 빈 골짜기가 쓸쓸하여 그 곁에 정사를 짓고 깨끗한 중을 불러 두면, 내 생각에 고요한 가운데에서도 위로 하는 도리가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 상왕이 말하기를 ‘내가 주상의 ‘빈 골짜기 쓸쓸하다.’는 말을 들으니, 깊이 울겠으나 산릉은 내가 먼 훗날에 갈 땅이다. 지금 비록 깨끗한 중을 불러 둔다 하나 뒤에 늘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더러운 중들이 내 곁에 가까이 있게 되면 마음이 편하겠느냐? … 절을 세우지 말라.’고 했다.”

35) 조남욱, 『세종대왕의 유불화해의식에 관한 연구』 『倫理研究』 제80호, (한국윤리학회, pp.1~30.)

36) 세종 2년 7월 11일(丁丑)

37) ‘역월(易月)의 제도[易月之制, 易月制]’란, 상기 중 군주의 국정공백을 우려하여, 한 달을 하루로 바꾸어 치른다는 의미로서, 한나라 이후에 시행되어 고려시대에도 준용되어 왔다. 고례(古禮)에 나타난 모친상의 경우 만1년 탈상이므로 그 기간의 달을 날짜로 계산하면 13일이 되고, 부친의 경우는 만2년 탈상이므로 25일이 된다.

었다.

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종의 어머니에 대한 애정 어린 공경의식은 어린 왕자시절에서부터 수많은 정치적 곡절 이후 군왕이 되어 사별하는 시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변함없이 지향되고 있었던 것이다.

## 2) 부왕 공경

세종은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여 부왕과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에 반하여 세자에 오른 장형 양녕대군은 비행을 자행하고 차형 효령대군은 유약한 모습 이어서 마침내 그는 부왕의 결심으로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그러한 사건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후에게는 눈물을 날게 할 정도로 왕자 화란에의 불안감이 조성되어 자칫 본의와 달리 불효의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종에게 주어진 형제우애의 과제는 바로 효행으로 직결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부왕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만큼의 어린 군주로 거듭나는 능력을 발휘할 때에 비로소 효자 임금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왕 태종의 희망은 매우 컸으며, 또 그 기반조성을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세종 즉위 3개월째에는 대신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내리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면서 당부하기를 “주상은 죽히 ‘선왕의 조업을 잘 이루어갈 임금[守文之主]’이 될 터이니, 경들은 마땅히 마음을 다하여 보좌해야 할 것이다.”<sup>39)</sup> 라고 하였다. 이 말만 보아도 그의 세종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만하다. 따라서 어질면서 유능한 군주가 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부왕에 대한 불효가 되는 셈이다.

태종의 세종에 대한 평가는 그 2년이 지나면서 뚜렷이 나타났다. 즉 상왕 태종은 세종으로부터 생신 하례를 받을 때 대신들과의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주상이 효성을 다하여 의식이 넉넉하니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구하라. … 주상은 진실로 문왕(文王)이다. … 만일 부인의 말을 들었다면 큰일을 그르칠 뻔하였다. … 내가 부탁해 맡기는 데에 사람을 잘 얻었으니, 자연 속에 한가로이 노니기를 이처럼 걱정 없이 할 자는 천하에 나 하나뿐이리라.”<sup>40)</sup>

부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단행한 세자 교체의 일로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 세종은 중국의 성군 문왕에 비유될 정도라고 여기면서, 그 흠족함의 감회를 효도의 맥락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종은 부왕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칭송을 받게 하니 이제 큰 효자로서 의의를 가지게 된다.

38) 산릉(山陵)의 장례행사는 별세 후 3개월째인 1420년 9월 16일(辛巳)에 거행되었다.

39) 세종 즉위년 11월 16일(壬戌)

40) 세종 2년 5월 16일(癸未)

세종의 삶에 있어서 부왕에 대한 애모와 존경의 모습은 어느 한 순간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러한 일상은 매일같이 직접 찾아뵙는 문안의 왕래 인사로 나타났다. 갑자기 임금이 된 청년 세종은 군대 지휘를 제외한 국정 전반을 통할해 가면서도 특히 부왕 즉 상왕을 찾아뵙는 일은 계속하였다. 실록에도 거의 매일 문안드리는 기사가 연이어 나타난다. 그러한 모습은 세종 4년 5월 부왕이 별세할 때까지 계속되었고, 부왕 역시 문안 의례를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여러 대소사에서 아들 세종과 자리를 함께하는 것을 흐뭇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와 같은 만남은 국정의 여러 가지를 돕고 또 30세가 되면 군권을 물려주겠다는 약속의 실천을 위하여 그 실무 역량을 키워가게 했을 것이다. 따라서 세종 초기에서의 문안 의례는 국정 운영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요컨대, 부모 공경의 효행의식은 변함없는 문안 인사를 낳게 되고 또 그 문안의 자리는 선대 정치를 발전적으로 이어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세종은 모후 상례의식 논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간혹 자신과 부왕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불변의 효심으로 그 말씀을 먼저 고려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거기에는 부왕으로서의 아들사랑이 병행되는 것이었으므로 자연스레 ‘부자유친(父子有親)’의 깊이를 더해가는 모습이였다. 그러한 분위기는 야외의 무예·수렵 행사에 동행하여 즐거움을 더해드리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런데 부왕 56세 때, 즉 세종 26세 때 늦은 봄 부왕이 발병하면서부터는 그와 같은 안정적 심경에는 변화가 일어난다. 부왕의 발병 시기는 1422년 3월 천달방에 신궁(新宮)을 완성하였을 때였으나 다행히 곧 호전되어 안정을 되찾아 함께 야외를 다니기도 했다.<sup>41)</sup> 그러나 그 1개월이 지나서는 다시 발병하니<sup>42)</sup> 세종의 긴장감은 더해갔다. 즉 그는 직접 간호하며, 왕실과 종친 및 대신들에게 문안하고 호위하게 하며 비상 국면으로 전환시켰다. 실록의 경우 모후 때와는 달리 구체적인 병명이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어의를 비롯한 왕실의 의료진들이 온갖 치병의 노력을 다했을 것임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차도가 없자 세종은 특단의 태도를 취해갔다. 그 2차 발병부터 별세할 때까지의 특이한 모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 자신은 부왕 곁을 떠나지 않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장형인 양녕대군도 불러서 간병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부왕의 발병 4일 째에는 별 차도가 없자 애절한 마음속에 스스로 고기반찬을 금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날에는 경기도 광주에 있는 양녕대군으로 하여금 와서 간호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오직 평소 부왕이 강조하던 부모와 자식 사이의 친애의식과 형제간의 우애심이 함께 발현되는 경우로서 신하들이 주장하는 정치권력 관계로 해석될 수 없는 부분이다. 세종이 부왕을 모시는 것은 천달방 신궁에 계실 때나 별세 2일전 연화방 신궁으로 옮길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았으며, 발병 10일 째에는 병세가 더욱 심해지므로 점을 쳐보게 하기도 했다.

41) 세종 4년 3월 21일(戊寅)~23일(庚辰)

42) 세종 4년 4월 22일(戊申)

둘째는, 가까운 신하나 대신들로 하여금 신성한 여러 곳에서 치병의 기도를 올리도록 한다는 점이다. 그 장소로서는 도전(道殿), 불당, 종묘, 소격전, 명산(名山) 등이었으며, 홍천사·연사중에서는 약사정근기도를, 개경사에서는 관음정근기도를, 진관사에서는 수록재를, 길상사에서는 나한재를 올리게 하였다. 그 어떤 초월적인 힘을 빌려서라도 부왕을 병고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신앙의식이나 정치이념의 차이가 문제될 수 없다는 모습이다. 따라서 것처럼 효성이 지극한 분위기에서는 종래와 같은 승유억불의 발언은 나타날 수 없었다.

셋째는, 특별히 큰 사면을 단행한다는 점이다. 부왕의 치병을 위한 정치 반성과 민심 전환의 차원에서 비롯하는 대사면의 결심은 부왕 발병 5일째에 나타났고, 또 그로부터 6일째에는 사형 이하의 죄인에 대해서는 모두 사면하고 석방할 것을 전국에 선포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또 그로부터 5일째에는 형조·대간·의금부에 명하여 유배된 자들에 대한 사면도 논의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이러한 특별한 모습은 그 이전의 어떠한 경우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이다.

넷째는, 부왕의 처소와 왕궁 주위에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는 점이다. 세종은 부왕 발병 9일째가 되어서는 신하들의 문병 행사를 금지시키고 군사들로 하여금 부왕의 친달방 신궁을 엄호하게 하였다. 그로부터 3일 뒤에는 그 신궁 경계를 더욱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궐 출입도 엄정하게 관리하면서 점차 도성의 호위를 더 강화시켰다. 이미 군권을 이양 받은 수준으로 혹시 발호할 수도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었다.

부왕의 병환에 별 차도를 보이지 않자 부왕의 거처를 연화방 신궁으로 옮겨드리는데, 당시의 세종 모습은 이렇게 전한다.

“입금이 모시고 간호하면서 약품이나 음식들은 모두 친히 받들어 올리고, 병환이 심할 때에는 밤새도록 곁에서 모시면서 잠시도 옷을 벗거나 자지 아니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모두 걱정하였다.”<sup>43)</sup>

신하들의 걱정을 낳게 할 만큼 곁에서 지극 정성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종은 마침내 부왕이 회복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관(棺)을 준비시켰다. 결국 그 하루를 지나자 별세하니 큰 사별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와 같은 효심은 상례의 엄정함으로 이어졌다. 그리하여 세종은 그 이전의 상례를 참작하고 예조에서 올리는 고례를 확인하며 그 어느 한 부분도 소홀함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때에 또 문제되는 것은 ‘한 달을 하루로 삼는다.’는 역월제(易月制) 부분이었다. 곧 예조에서 역월제를 아뢰니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역월제는 한나라·당나라 이후 보통 입금이 하던 것으로 옛 선왕의 법도는 아니다. 대비 초상 때

43) 세종 4년 5월 8일(甲子)

에 예관이 부왕의 명령을 따라 역월제를 만들어 사용하려 했으나, 내가 거둬 청하여 산릉 뒤에 효복을 벗었다. 지금 25일 만에 벗게 되면 전번 초상 때만도 못하게 된다. 나는 상복으로 최복(衰服)을 3년 동안 입겠다. 그러나 최복으로는 정사보기 어려우므로 권도로 졸곡 뒤에 상복을 벗고 흰옷과 검은 사모와 각대 차림으로 정사를 보되, 상사 의식에서는 모두 상복을 입고, 소상·대상·담제의 경우는 일체 고례에 따를 것이다. 백관들은 역월제에 따라 복을 벗는 것이 좋겠다.”<sup>44)</sup>

세종 자신이 부왕의 견해를 조정하면서까지 거행하던 모후 상례를 회상하면서 옛 선왕의 3년상 원칙에 변함없는 효성을 권도(權道)의 논리로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정 대신들은 ‘신하도 임금의 자식과 하나’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졸곡 이후 상복 벗기를 요청하니, 세종이 동의함으로써 조정에서의 상복문제는 일단락되었다.

즉 세종의 효심은 예제에 대한 철저한 의미 파악의 형태로 나타나 조선왕조 특유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셈이다. 그리하여 당시 대신 출신의 큰 학자 조용(趙庸)은 혹자가 세종 거상에 대하여 질문하자 눈물로 칭송하기도 했다.<sup>45)</sup> 세종 24세 때의 모후상과 26세 때의 부왕상사에서 선왕의 옛 제도에 내재한 의미를 되살리며 새로이 제시하던 세종의 상례의식은 그렇게 큰 유학자의 심금까지 울릴 정도였던 것이다.

그 후 세종은 여러 왕자들과 신하들을 거느리고 대상까지의 상례의식을 엄숙히 거행하였다. 실록에는 당시 세종의 슬픈 곡소리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사실도 전하는데, 그간의 심경은 광효전에서 올린 담제(禮祭)의 제문<sup>46)</sup>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자식으로서 또 왕위 계승자로서의 특별한 감회를 ‘지극한 은혜[至恩]’로 표현하면서 그 보은의 길은 오직 자신의 효성을 열어나가는 데에 있다고 밝혔다. 그 후 부왕을 모후와 함께 광효전으로부터 종묘에 모시는 부모(祔廟) 의식을 거행함으로써 여러 상례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 2. 군왕으로서의 형님 존경

### 1) 양녕대군 보호

태종 18년(1418) 6월 충녕대군이던 22세의 세종은 ‘택현론(擇賢論)’의 명분을 따른 임금과

44) 세종 4년 5월 13일(己巳)

45) 세종 4년 5월 26일(壬午) : “조용이 눈물 흘리며 말하기를 ‘한나라 문제가 역월(易月)한 이후, 역대 군왕이 선왕의 예제를 행하지 못하였고, 오직 송나라 효종이 3년의 예제를 행하였다. 그러나 어찌 우리 주상의 효성과 같으리오. 늙은이가 다행히 살아있어서 천년 동안 절대로 없던 일을 얻어 볼 줄은 생각지 못하였으니, 나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했다.”

46) 세종 6년 7월 2일(己巳) : “제문에 이르기를 ‘아버님께서는 덕이 하늘에 짝하여 성스런 태조를 도우시며 가없는 경사를 이루셨습니다. 생각하건대, 조그만 몸으로 외람되이 큰 계통을 이은 제가 지극한 은혜를 보답하기도 전에 활과 칼을 홀연히 버리신 후 세월이 흘러 두 돌이 넘고 담제 때가 되니 애모의 마음 더욱 깊어집니다. 삼가 간소한 제물을 올리어 저의 효성[孝忱]을 펴까 하오니, 돌보시고 흠향하소서.’라고 했다.”

신하들의 합의로 갑자기 장형 양녕대군이 14년째 이어온 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반면에 양녕대군은, 새로운 세자 권력의 안정성 확보의 시동으로 이제 더 이상 궁궐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격리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경기도 광주로 옮겨 연금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하들로부터는 과거 행적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당하는 처지로 변했다. 그리하여 태종이 부모의 정으로 양녕대군을 부를 경우에는 신하들이 긴장하면서 더 멀리할 것을 진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태종은 그를 세자의 지위에서는 폐했을지언정 그 아들을 향한 정분마저 포기하지는 않았다.<sup>47)</sup> 세자 즉위 2개월만에 군주가 된 세종 또한 장형 양녕대군에 대한 존경심엔 변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미안한 마음까지 가지게 된다. 이러한 분위기를 널리 알리고자 부왕 태종은 세종과 대신들로부터 잔치를 받는 자리에서 “여기에 양녕이 오게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다. 주상이 요청하여 된 것이다.”<sup>48)</sup>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개적 발언은, 양녕대군에 대한 세종의 존경과 태종 자신의 애정, 그리고 그러한 심경을 읽어가는 세종의 태도를 효심으로 평가한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양녕대군의 크고 작은 거동 자체에 대하여 항상 경계의 끈을 늦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긴 세월 동안 세자로 있으면서 다음 군주로서의 기반을 다져왔으므로 혹시 현재의 정치권력을 저해하는 불의의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의 성격이 광망하여<sup>49)</sup> 어떠한 걱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이 우려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부왕 태종이 상왕으로 있는 경우에도 계속되었지만, 세종 4년(1422) 5월 그가 별세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그 경계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그리하여 태종 별세 한 달이 지날 무렵 의정부와 육조의 대신들은 이제 양녕대군을 궁궐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진언하기 시작했다. 이에 ‘친히 말해서 보내겠다.’는 답을 들었지만, 어떠한 조치가 없자 또 그 문제를 거듭 제기하니, 세종은 이렇게 대답했다.

“대비 초상 때 부왕께서 양녕으로 하여금 빈전을 모시게 하고 졸곡(卒哭) 이후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무릇 죽음을 보내는 것은 인생 도리의 마지막인 것이다. 지금 큰 상을 당했는데, 졸곡 이전에

47) 부왕 태종은 별도로 마련한 낙천정(樂天亭,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그 터가 있음)에서 양녕대군의 처소 문제를 대신들과 논의하다가 더 먼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제의를 접하자, 대비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쇠약해진 점을 이유로 반대하였다(세종 1년 5월 12일(丙辰)). 즉 종종 만날 수 있는 거리에 두어서 ‘부모와 자식의 정’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이 강했던 것이다.

48) 세종 1년 6월 17일(庚寅)

49) 양녕대군의 성격이 광망했던 사례로서는, 효령대군이 회암사에서 불사를 올리는데 그가 사냥한 짐승들을 펼쳐 놓고 굽기도 하는 행태를 보이며 “부처에 영험이 있다면 5·6월에 모피 방한구는 왜 벗지 못하는가. 나는 살아서 국왕의 형이 되어 부귀를 누리고, 죽어서는 불자의 형이 되어 보리에 오를 터이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고 말하던 경우가 주목된다. (세종 28년 4월 23일(庚申))



어찌 차마 돌려보내겠는가? 비록 여러 달 있을지언정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산릉(山陵)이 다 끝나면 반드시 돌아가도록 하겠다.”<sup>50)</sup>

모후 때의 선례를 따라, 또 인간 도리로서 부모 자식 사이의 정분을 생각해서라도 신하들의 건의를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정치적 동반자 관계가 아닌 이상 속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신하들의 주장과는 달리 세종은 그에 앞서 부모에 대한 동복형제로서의 인간애가 더 우선된다고 보는 것이다. 위 답변에 나타나듯이 정치 불안을 우려하는 권력의식의 맥락에서 신하들은 매우 예민한 반면 세종은 효성과 우애의 정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초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유정현, 이원 등의 대신들은 그 2년 전의 모후 별세 때에 양녕대군이 모시던 것을 태종이 보고 ‘내가 죽은 뒤에는 지금과 같이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한 뜻을 되새기면서 그러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 다음 해 2월이 되어서는 그러한 경계심은 탄핵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조정의 문무관 2품 이상의 관원이 모두 하나 되어, 양녕대군의 과거 세자시절의 비행을 재론하며 부왕 상중에 언행이 신중하지 못한 점과 장례 직후 사냥한 것을 불효로 비판하고, 또 그 이후 집수리 과정 및 종자의 비행을 단속하던 고을 관리에서 나타나던 불충의 언행 등을 문제 삼아 죄악으로 논하면서 의법 처리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sup>51)</sup> 이러한 태도는 이제 세종을 비호하던 부왕마저 잃은 27세 임금에 대한 충성심과 정치권력의 기반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 조정 신하들에 있어서는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양녕대군이 세자이었다는 사실을 지울 수 없으며, 혹시 불의의 순간에는 그가 복위를 꾀하여 정계가 어지러울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그렇게 대규모의 탄핵운동으로 표명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 탄핵 상소는 불효·불충의 사실 확인과 공적 대의(大義) 명분을 앞세우며 거의 매일 계속되었다. 그래도 세종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sup>52)</sup>, 그 4일 쯤에는 결국 정부 각 기관의 관원들이 대궐에 들어가 내정과 외정에 포진하여 그의 죄를 청하는 총궐기의 양상을 띠었다. 해가 지는데도 물러서지 않으니 마침내 세종은 이렇게 반응했다.

“법에 조치하는 것은 내가 차마 할 수 없다. 막고 금하는 일은 사정을 보아 시행하겠다.”<sup>53)</sup>

여기서 우리는 세종 자신이 임금이지만 형에 대한 아우로서의 애뜻한 심경은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우애의식이 보호의 형태로 나타나는 점을 보게 된다. 이를 계기로 하여 세종 임금과의

50) 세종 4년 6월 6일(辛卯)

51) 세종 5년 2월 16일(丁卯)

52) 다만 의금부에서 전민과 이원생이 양녕대군에게 내통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청함에 대해서는 각각 한 등급씩 내릴 것을 명하기는 했으나(세종 5년 2월 17일(戊辰)), 양녕대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53) 세종 5년 2월 19일(庚午)

거리를 더욱 벌려놓으려던 조정 신하들의 탄핵운동은 잠잠해지기 시작했다.<sup>54)</sup>

하지만 그 이후에도 양녕대군에 대한 조정 신하들의 감시의식은 한시도 놓이지 않으며 때로는 죄를 청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종은 그에 대한 존경과 우애의 마음을 굳게 지키면서 부단히 다양한 하사품을 내리고 궁중에 불러 연회를 베풀거나 몰래 만나기도 했다.

양녕대군에 대한 세종의 소감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지만 좌대언 김종서에게 이른 다음과 같은 발언은 그 대표적인 예로 보인다.

“경이 일찍이 언관이 되어 역시 양녕의 일을 거론하니, 나의 본심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감히 말하는 것이다. 양녕의 과실은 여색에 빠지고 소인의 무리들과 친압하여 광패한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뉘우쳐 고치지 않아서 신령과 사람들의 입금이 될 수 없었기에 태종께서 대의를 위해 폐한 것이지 그 밖에 다른 허물이나 악행은 없다. 천륜의 중함으로 말하면 양녕이 마땅히 왕위에 올라야 한다. 나는 차례가 아닌데 그 자리에 대신하여 일국의 낙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어찌 마음속에 부끄럽지 않겠는가. 하물며 나를 해할 마음이 없는데 어찌 불충한 사람이 외방에 쫓겨난 것처럼 서로 만나보지 않아야 하겠는가. … 내가 일국의 임금인데 오히려 필부만도 못하게 형의 과실을 벗겨 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은 이러한 뜻을 알아서 사람들을 타이르라. 나는 앞으로 그를 서울에 불러 항상 보면서 형제의 도리를 다하겠다.”<sup>55)</sup>

장형 양녕대군이 세자의 자리를 잃었다 하여 세종 자신이 형님으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존경심으로 말미암아, 신하들이 보는 그에 대한 평가는 잘못된 부분이 많고 지금 또 멀리하도록 하는 것은 형제 우애의 도리에도 걸맞지 않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이다. 그러한 심경은, 자신이 3남으로서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처지였는데도 입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미안함으로 해석하여 더욱 깊고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후에는 그 어떠한 양녕 배척을 접하더라도 그러한 기초를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종종 은밀히 만나거나<sup>56)</sup> 궁중 근처에 집을 짓고 살게 하여 형제의 정을 더해갔다. 그러한 존경과 보호의 심경은, 50세 때 부인 잃는 슬픔속의 이어하는 곳으로서 주위의 반대도 물리치며 바로 그 양녕대군이 살던 집을 택하고 있었던 점<sup>57)</sup>에서도 읽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세종은 신하들이 지향하는 양녕대군과의 정치적 상극관계를 오히려 정성을 다해 화해관계로 전환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54) 당시 그렇게 약속한 방금(防禁)의 조치는, 그 6일 후 과전녹봉(科田祿俸)에서 월봉 급여의 방식으로 전환시키고, 잠인들로 하여금 사적으로 통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도로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그 3년이 지날 무렵에는 다시 과전을 돌려주고 녹봉도 지급하도록 환원시켜주었다. (세종 8년 5월 19일(壬子))

55) 세종 13년 5월 4일(丁卯)

56) 세종이 양녕대군을 부를 때는 공개하겠다고 말했는데도 몰래 만나자 대간들로부터 신뢰 회복의 밀봉 상소를 받게 되었으며(세종 16년 2월 19일(丁卯)), 또 며칠씩 머무르게 하자 그것은 태종의 유교(遺敎)와 신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사헌부 상소를 받기도 했다. (세종 16년 11월 17일(辛卯))

57) 세종 28년 4월 8일(乙巳)

## 2) 효령 대군 존경

태종의 차남 효령대군 이보(李補)는 세종의 한 살 위 둘째 형이다. 그는 대군시절 성균관으로부터 추천 받은 이수(李隨)에게서 아우 충녕대군과 함께 배우며 형제간의 우애를 누렸다. 그러나 부왕 태종의 평가<sup>58)</sup>로 알 수 있듯이 성품이 온화하나 제왕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세자 교체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

효령대군은 아우가 즉위하자 왕실의 형님답게 임금을 적절히 보필하면서 특히 외교 부분에서 그 위상과 역할을 발휘하였다. 하지만 정치적 상하 관계로 보면 그 형 역시 신하의 위치에 있게 된다. 세종은 이러한 기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형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한 심정으로 말미암아 세종은 중국 사신을 영접하는 축하연에서 효령대군이 술잔을 돌릴 때 일어서서 받았다.<sup>59)</sup> 이를 본 참석자들은 ‘임금이 어떻게 일어나서 술잔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또 중국 사신들도 질문하였다. 그때 황희는 그것을 ‘임금이 천륜을 중시여기기 때문’으로 풀이하였다. 이에 모두들 감복하였고, 사신들은 중국 역사상의 선례까지 언급하며 임금의 덕이 매우 높은 것으로 칭송하기에 이르니, 그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어 갔다.

이처럼 세종은 자신이 비록 왕위에 있는 것이지만 효령대군이 바로 자신의 형님이라는 사실, 즉 그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다. 그러한 태도는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상하의 정치질서 속에서도 상호 공경의 인간애를 더하게 하는 도덕적인 정치문화 전개에의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세종의 애정은 형님 존경에 그치지 않고 이복형제들과 종친 부마 등 왕실의 여러 사람들에게에도 펼쳐졌다.<sup>60)</sup>

효령대군에 대한 세종의 마음은 효령의 교외 별장인 희우정(喜雨亭)을 중심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는 세종 7년 그 정자에 처음 갔을 때 마침 반가운 비를 만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면서 군사들의 무예 연마를 관람하며 잔치를 베풀고 형님께는 안장 갖춘 말과 농토를 드리며 기쁨을 느끼게 하였다.<sup>61)</sup>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또 그 곳에 나아가 잔치를 올리면서 “대군께서 병을 피하여 이곳에 왔었는데 이제 나왔으니, 내가 와서 위로하는 것이다”<sup>62)</sup>라는 말로 형님 존경에의 특별함을 밝혔다. 그러한 분위기는 함께 참석하던 함평공주와 양평공주에 대한 선물 하사로서 더 돋구어졌다. 그와 같은 형님 존경심은, 효령대군 첩 간통사건에 대한 엄정

58) 1418년 6월 태종이 세자를 교체시킬 때 차남 효령대군에 대해서는 “효령은 자질이 미약하고 성질이 너무 곧아서 일을 조목별로 잘 처리하지 못한다. 내 말을 들으면 그저 빙긋이 웃기만하니, 나와 중궁은 효령이 항상 웃는 것만을 보았다. … 술 한모금도 못하니 이 또한 불가하다.”라고 평가했다. (태종, 18년 6월 3일(壬午))

59) 세종 5년 4월 7일(丁巳)

60) 그리하여 세종은 궁궐 안에서 효령대군을 비롯한 경녕군·공녕군 등의 이복형제들 및 가까운 종친 부마 등과 함께 격구하고 연회를 베푸는 행사를 거행하기도 했다. (세종 6년 11월 1일(壬申))

61) 세종 7년 5월 13일(壬午)

62) 세종 8년 8월 18일(己卯)

성 유지<sup>63)</sup>, 세자의 효령대군에 대한 예법 정립<sup>64)</sup>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 세종은 신하들의 송유억불과 맞서서는 효령대군을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효령대군은 일찍부터 불교를 이해하며 신봉하는 입장이었다. 그리하여 왕실의 불사에서는 항상 그가 흔히 거명될 정도였다. 그런데 회암사의 경찬 행사에 대하여 유신들이 비판하면 세종은 그 내력을 확인시키면서 이해를 구하고<sup>65)</sup> 또 홍천사의 탑전 수리공사는 직접 형님이 담당하도록 명하기도<sup>66)</sup> 했다.

나아가 세종은 효령대군의 치병 구완의 방법으로는 불교 기도의식을 따랐다. 세종 20년(1438) 5월 효령대군의 병이 깊어지니, 세종은 승지 정충경에게 승려 33인을 흥덕사에 모아서 정성으로 생명을 구하는 불공을 드리도록 하고, 또 자신은 그 기도문에 직접 수결했던 것이다.<sup>67)</sup> 이처럼 형님 존경을 불공의식에 담아내는 태도는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sup>68)</sup>

그 후, 마침내 효령대군의 병이 완치되자, 세종은 직접 효령의 장남 의성군 이채(李棗)의 집에 거동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왕실 형제간의 우애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그 모습을 당시의 실록은 이렇게 전한다.

“임금이 의성군 집에 이르자 가마에서 내리며 눈물을 흘리다가 효령을 보고서는 또 울었다. 이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함께 자리하던 모든 종친들이 차례로 일어나 춤을 추자 효령도 일어나 춤추고 술잔 올리니, 임금도 역시 일어나 춤추며 이내 눈물을 흘렸다. 잔치가 어울려 흥겨운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애초에는 밤을 새려했지만 지금 소낙비로 군사들이 옷을 적시고 있으니, 마음에 미안하다.’하고, 드디어 연회를 파하고 궁으로 돌아갔다.”<sup>69)</sup>

세종이 호불 형님 효령대군을 친애하며 존경하던 마음은 위와 같은 모습 뿐만은 아니었다. 효령대군의 크고 작은 불사를 주시하던 유신(儒臣)이나 성균관 유생들은 그러한 성격의 정보를 입수할 때마다 부단히 그에 대한 비판과 배불론을 전개해 왔지만, 세종은 그에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그것은 국가적인 행사가 아니라는 방향으로 또는 선왕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는 사례라고 돌리면서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흐름은 점차 자신의

63) 세종 9년 왕실의 천척 업무 담당관인 지돈령 직위에 있는 이담이 효령대군의 기생첩 계궁선과 간통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의금부에서는 곤장 90대에 2년 반의 노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하니, 세종은 공주로 귀양 보내면서 벌금형으로 조정하였고, 계궁선에게는 곤장 90대, 중매한 기생 대천교에게는 곤장 80대에 처하여 풍기를 단속하도록 했다. (세종 9년 2월 19일(丁丑))

64) 그 다음 해에는 세자가 효령대군과 여러 숙부 및 아우들을 대하는 예법을 상세히 제정하도록 했다. (세종 10년 1월 16일(己亥))

65) 세종 17년 3월 8일(庚辰)

66) 세종 17년 5월 20일(辛卯)

67) 세종 20년 5월 27일(庚戌)

68) 그 한 달여 뒤에 또 병이 심해지자 세종은 상림원에 승려들로 하여금 효령대군의 병을 구완하는 치성을 올리게 하였다. (세종 20년 7월 2일(甲申))

69) 세종 20년 9월 5일(丙戌)

내면에서도 불심이 일어나 유신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형국으로 변하기도 했다.

세종의 효령대군에 대한 존경과 유대감은, 그의 생애 말기 자신이 발병하자 바로 그 형님 대군을 찾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다.<sup>70)</sup> 그러나 그러한 관계를 악용하는 성격으로서 효령대군을 백으로 삼는 하인들의 비행에는 엄격이 대처했다.<sup>71)</sup> 이러한 측면에서 세종의 우애는 도덕국가 건설을 위한 왕실의 활력으로는 작용할 수 있을지언정 백성에게 고통을 주는 권력 악용의 배경으로 오인될 수는 없게 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IV. 세종 효행의 특징

세종은 부모와 사별한 상태에서도 평소와 같은 공경의 마음을 잊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는 상기를 지나 처음으로 받는 탄신 하례의 행사를 정지시키면서 이르기를 “사람의 자식으로 태어난 날은 마땅히 갑절이나 비통해야 할 것인데, 어찌 잔치하며 즐길 수가 있겠는가?”<sup>72)</sup>라고 말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은 부모 덕분인데 그분들이 지금 계시지 않는 심경이 ‘매우 비통한 상태’임을 밝히면서 그 어떠한 즐거움을 느낄 여지가 없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세종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일체감과 깊은 애정의식이 남달리 깊었다.

이제 앞서 살핀 내용들을 종합하여 세종 효행을 평가해보는 입장에서 그 특징적 요소를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겠다.

첫째는, 건강한 몸가짐으로 부모의 걱정을 없게 했다는 점이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지나친 독서로 부왕으로 하여금 발병의 우려를 받게 하였지만<sup>73)</sup>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을 유지했다. 그러나 그의 아우 성녕대군은 일찍이 요절함으로써 모후와 부왕의 깊은 슬픔<sup>74)</sup>을 받게 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거나, 건강한 몸가짐이 효행의 기본으로 지적되었던 고전

70) 세종은 그 곳에서 사찰과 명산대천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도록 하는 비유교적 형태로 생명의식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종 32년 1월 22일(戊戌))

71) 세종 8년 10월 3일(癸亥)에는 효령대군의 가신 김이와 노비 석이가 충주에 있는 여러 사찰 승려들을 구타하고 경작지와 작물을 빼앗는 등의 소란 사건을 방조한 김사청·김후생에게 형벌이 가해졌으며, 10년 1월 16일(己亥)에는 효령대군 종들이 과전의 세수로 거두는 분량이 너무 많다는 보고에 따라 국문할 것을 명하였으며, 21년 9월 11일(丙辰)에는 진라도에서 효령대군의 노비인 승재와 난봉이 떠돌이 340여명을 모으고 60여 호를 둘러싸고 수탈하며 하인 동량은 녹사 하함을 폭행하고, 또 승지 정충겸의 노비 부개는 효령대군의 종이라고 속이면서 포악한 짓을 감행하는 사건이 보고되자 모두 처형했다.

72) 세종 7년 4월 10일(己酉)

73) 태종 18년 6월 3일(壬午) : “임금이 말하기를 ‘충녕대군은 천성이 충민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몹시 추운 때나 더운 때를 막론하고 밤새 독서하여, 나는 그가 병이 날까 두려워서 항상 밤에 글 읽기를 금지시켰다.’고 했다.”

74) 태종은 4남 성녕대군을 잃은 심경을 “성녕이 일찍 죽어서 생각나지 않는 날이 없을 지경인데 어찌 나라를 위할 기분이 일어나겠느냐?”라는 말로 나타내면서 조기 양위의 뜻을 보이기도 했다. (태종 18년 7월 6일(甲寅))

의 효론<sup>75)</sup>에 유의해 보면, 그의 건강한 몸가짐은 곧 효도 실천으로서의 기본적 의미와 직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는, 타고난 총명함에 공부를 열심히 하여 빼어난 왕자로서의 저력을 발휘하였다는 점이다. 그가 세자교체의 계기에서 차형을 넘어 새로운 세자로 지목되는 데에는 바로 그 이전부터 보였던 탁월한 지혜와 기품에 대한 부왕과 신하들의 높은 평가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 논의의 과정에서 모후의 걱정을 낳기도 했지만 앞서 보았듯이 깊은 우애심으로 불식되는 것이었으며, 오히려 정치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세자가 되어서도 그 호학열은 그침이 없어서 부왕으로부터 “공부 권장의 걱정을 덜게 되었다.”<sup>76)</sup>는 말까지 듣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의 세자 양녕대군이 효도의 이름으로 공부하기를 호소하여도<sup>77)</sup>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점에 비하면 큰 차이를 느끼게 된다.

셋째는, 항상 부모를 안정시키고 그 공경의식을 적극 확대해가고 있었다는 점이다. 세종은 왕자시절에 있어서는 물론 임금이 되어서도 항상 문안 인사를 생활화 하여 부자간 친애의식을 나누며 국가운영의 자문을 받았다. 『예기』에서의 이른바 ‘혼정신성(昏定晨省)’<sup>78)</sup>의 태도로써 효성을 다하며 국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한 효행은 부왕과 모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로는 종묘에 모신 선왕들에의 숭앙의식으로<sup>79)</sup>, 아래로는 왕실의 여러 구성원과 종친에 대한 사랑으로 넓어졌으며, 또 밖으로는 노인 공경의 정치문화를 낳게 하였다.

넷째는, 세종의 효행은 여러 가지 경계를 넘어 추구되었다는 점이다. 세종은 어려서부터 유교 고전을 읽으며 생명존중의 인생관과 도덕적인 삶에 가치관을 정립하여 효도를 제일의 덕목으로 지향하였다. 그런데 그 실천 방법에 있어서는 오직 유교적인 입장에 국한하지는 않았다. 그러한 실재는 앞서 확인했듯이 모후의 구명 기도 의식에서는 불교와 도교 및 무속 의식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에 구애됨이 없었던 모습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모후의 산소에 절을 짓겠다고 생각하면서 부왕과 충돌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그의 효 지향에는 어떠한 사상적

75) 『논어』 『위정(爲政)』: “맹의자가 효를 물으니, 공자는 ‘부모님은 오직 자네의 그 병을 걱정하신다.’고 말했다. (孟懿子 問孝 子曰 父母 唯其疾之憂.)”

『효경』 ‘경1장’: “이 몸 모든 것은 부모에게서 받았으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의 기본이다. (身體 髮膚 受之父母 不敢毀傷 孝之始也)”

76) 태종 18년 6월 10일(己丑)

77) 1413년 세자 양녕대군 20세 때 동궁에서 평양 기생 소앵 등을 불러 놀아난 사건이 발각되어 교육 담당관인 조용과 변계량이 문책되자 왕비는 효성에 호소하며 그 변화를 당부했다. (태종 13년 3월 27일(丙午))

78) 『예기』 『곡례상(曲禮上)』: “무릇 사람의 자식다운 예절이란,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 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드리며, 날이 저물면 잠자리 정해드리고 날이 새면 편안하신가를 살피드리는 것이다. (凡爲人子之禮 冬溫而夏清 昏定而晨省.)”

79) 종묘 제사의식이 효성으로 해석되는 대목은 다음의 기사에서 볼 수 있다. “임금이 박은 등을 불러 위로하기를 ‘금일 제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다.’고 하니, 아뢰기를 ‘예식에 허물없고 일기가 청명하니, 실로 전하의 효성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세종 2년 1월 16일(乙卯))

차이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다. 그와 같은 초월적 실천 의지로 말미암아 부왕과 모후로부터 효행의 과제로 부여받은 형제우애의 길은 하나의 사명감으로 각인되어 양녕대군에 대한 신하들의 집요한 분리운동에 대해서는 “형제가 서로 보는 것이 어찌 의리에 해롭다는 것인가?”<sup>80)</sup>라고 반문할 정도의 당당함을 보일 수 있었다.

그와 같은 세종 효행의 복합적인 모습은 어린 아우를 잃을 때에도 뚜렷했다. 14세의 성녕대군이 완두창에 걸렸을 때 의서까지 살피면서 진행하던 사랑의 간병활동은 부모의 감탄까지 낳게 했던 것이다.<sup>81)</sup> 그와 사별한 후에도 부모의 성녕 사랑 맥락을 따라 대자암에 승당을 짓는 불교의식을 추구하였다. 그 때 대신들의 반대에 대하여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

“내 들으니 ‘효자는 아버이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한다. 비록 부처를 믿지 않더라도 감히 생전의 모후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않을 것이겠는가? 전일에 이러한 뜻으로 부왕에게 아렸는데 부왕께서도 그렇게 여기셨다. 묻는 자들이 있으면 경들은 마땅히 이로써 답하라.”<sup>82)</sup>

부모 공경의 효도와 아우 사랑의 애정에는 유교나 불교의 대립이 있을 수 없다는 태도이다. 그 발언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효자는 아버이를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孝子 不死其親)”는 표현이다. 최상의 효도는, 비록 몸으로는 부모와 이별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여기에 함께 계시다.’고 여기는 유대의식의 연속성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세종에 있어서 그러한 지향성은 유교적 제사의식과 불교적 축원의식의 병행 공존을 가능하게 했던 셈이다. 그와 같은 병존의식은 모후를 비롯한 왕실 구성원들의 종교의식과 어울려 그 효행의 깊이를 더할 수 있게 하였다.

## V. 결론

효행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으로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시되는 덕목이다. 인간 탄생의 소중함과 애정 어린 부모에 대한 보은정신은 물론, 자아의식과 삶의 유기체적 측면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효경』속 ‘입신행도(立身行道)’론에서 보이듯이 자신의 올바른 삶은 자기의 영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부모의 위상까지 높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따라서 몸가짐이 바르지 못하거나 도리의 실천 수준이 높지 못하면 효자로 평가되기 어려운

80) 세종 17년 9월 19일(丁亥)

81) 태종 18년 2월 4일(乙酉) : “충녕대군이 의원 원학을 이끌고 밤낮으로 항상 동생 중의 곁에 있으면서 자세히 의서를 찾아보며 일찍이 손에서 놓지 않고 직접 약을 먹이며 병을 고치고자 하니, 태종과 모후께서 그 지극한 정성에 감복하였다.”

82) 세종 2년 7월 30일(丙申)

것이다.

그러한 효행은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부친과 모친 사이가 불안하거나 가족 사이에서 정치적 권력 관계가 작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더구나 모후도 반대하던 세자 교체의 시기에 있어서는 형제 우애의 위기를 맞으며 또 다른 불효의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전 왕자시절부터 보였던 부모 공경의 태도는 물론, 두 형들에 대한 존경심을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견지해 갔다. 그러한 모습의 절정은, 사상적 경계를 넘어선 모후 구명활동, 부모 생시의 은정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상례의 정비,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신하들의 양녕대군 제거운동에도 의연히 대응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가까이 대하던 끈기 등에서 볼 수 있었다. 그와 같은 노력이 안으로는 과거에 볼 수 없던 왕실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밖으로는 도덕적 정치문화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그러면 세종에 있어서 그러한 심성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그가 어려서부터 주변의 이목을 사던 총명함과 호학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즉 세종의 총명함은 생명에 대한 존엄의식을 심화시키는 것이었으며, 그의 호학은 올바름을 잃지 않는 ‘정명(正名)’적 인생관을 구현시키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그는 효성과 우애를 뒤로하는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차마 그럴 수 없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그러한 마음은 그의 사고와 언행 그 모든 것의 최상위에서 작용했다. 그리하여 그 실천에 있어서는 유교나 불교 및 도교의 차이를 의식하지도 않았다.

나아가 세종의 형제애는 부모에의 효심과 같은 성격으로 지향되는 것이었다는 점 또한 특이하다. 그는 일찍이 부왕이 눈물로 각인시킨 왕자세계의 형제우애를 결코 잊지 않았으며, 또 세자교체기 모후의 눈물로 부여된 형님 존경의 과제를 ‘형제간의 만남이 왜 의리에 해로운가?’라고 당당히 말하면서 적극 해결해갔던 것이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효도의식은 그 역역이 매우 넓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공간적으로는 직접적인 부모 관계를 초월하고 있었으며, 시간적으로는 사별을 넘어 장구히 지속해 가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종의 효행 본심은 부모와 이별한 26세 이후에도 변함없었다. 즉 그의 부모생각 효행의지는 엄정한 제례의식의 정립과 내불당 건립 등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애민의 어진 정치 발현에 이르기까지 국가 운영 전반을 관통하였다. 이를테면 세종이 성군으로 평가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데에는, 부왕 태종의 자신에 대한 바람을 구현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효행정신이 심층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요컨대, 왕실의 제3남으로 태어난 충녕대군 세종은 조선 초기 어려운 정치 환경 속에서도 짙은 인간애로서의 효도정신을 적극 발휘하여 부왕과 모후에게는 자녀사랑애의 안심을 느끼게 하고 두 형들에게는 아우 사랑의 마음을 더하게 하였으며, 왕실과 종친 및 정계에서는 인간 존엄의 도덕적 가치를 제고시켰던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에 부끄럽지 않는 자기관리로서의 ‘왕자다움’과 ‘세자다움’ 그리고 ‘인간다움’과 ‘임금다움’의 과제를 상기하면서 그 최상의 모범을 보이려는 깊은 사명감으로 말미암아 더욱 빛나게 됐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과정에서 그는 인간애 지향의 내적 만족감으로서 또 다른 즐거움을 느꼈을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자아정립의 차원에서 지향된 세종의 효심과 효행은, 오늘날 도덕·윤리교육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하나의 모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족관계가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하면 더욱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구성원의 화해공존의 분위기는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朝鮮王朝實錄 - 태조·정종·태종·세종조편』 (서울: 한국국사편찬위원회, 1955.)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이가원 외 역, 『세종장헌대왕실록』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68-1980.)  
『세종대왕 어록 1-2』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1.)  
『세종대왕 연보』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7.)  
『論語』 『孝經』 『禮記』  
금장태 외, 『세종문화사대계 4: 윤리·교육·철학·종교편』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9.)  
이승녕, 『세종대왕의 학문과 사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1.)  
이태국, 『세종대왕의 어린시절』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4.)  
조남욱, 『세종대왕의 정치철학』 (부산: 부산대출판부, 2001.)  
조남욱, 『조선조 유교 정치문화』 (서울: 성균관대출판부, 2008.)  
지두환, 『세종대왕과 친인척 1-5』 (서울: 역사문화, 2008.)  
홍이섭, 『세종대왕』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86.)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 여말선초 대불교시책-』 (서울: 일조각, 1995.)  
김용환, 『조선조 초기 왕실의 유불의식 연구』 『한국민족문화』 (부산대민족문화연구소, 제9집, 1977.)  
김성준, 『태종의 외척 제거에 대하여』 『역사학보』 17-18합집, (역사학회, 1962.)  
이승녕, 『세종대왕의 개성의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3집,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1966.)  
조남욱, 『조선조 태종의 정치철학 연구』 『동양학』 제27집, (단국대동양학연구소, 1997.)  
조남욱, 『세종대왕의 유불화해의식에 관한 연구』 『윤리연구』 제80호, (한국윤리학회, 2011.)  
지두환, 『조선초기 朱子家禮의 이해과정』 『한국사론 8』 (서울대한국사학회, 서울대출판부, 1982.)  
하우봉, 『세종대 유교윤리 보급에 대하여』 『全北史學』 제7집, (전북대사학과, 1983.)  
한상설, 『조선초기 세종·세조의 불교신앙과 臣權견제』 (동국대대학원, 1981.)  
한우근, 『조선왕조 초기에 있어서의 儒敎理念의 實踐과 信仰·宗教』 『한국사론 3』 (서울대한국사학회, 지식산업사, 1976.)

Abstract

## A Study on the Filial Behavior of King Sejong

Cho, Nam-Uk

This thesis was written for the purpose of grasp the filial behavior of the Great King Sejong(世宗大王, 1397~1450) who was the fourth king in the Joseon Dynasty. His father was Tae-jong as the third king. And his mother was Wonkyunghou(a daughter of Minjae) who was a revolutionary partner in that time.

King Sejong(Chunglyoung) was born the third son of Tae-jong. The relations between the father and the mother were poor. Because the Tae-jong had many royal concubines, killed his wife's brothers, and changed the crown prince(Yanglyoung) as the third son by way of selecting of wise prince. Therefore, the political situation became restless.

Nevertheless, King Sejong dedicated his best efforts to respect his parents and to make a brotherly love. The mind of filial affection was molded by natural intelligence and constant studying of Confucianism. And his filial behaviors were realized regardless of the difference in the thoughts and the ceremonies.

In the political life of King Sejong, the brotherly love had the same meaning with filial duty. Then the royal family was stabilized and made a moral nation. The problem of morality and the way of government were regarded as a same vein in the political behavior of King Sejong. And he was considered a good and wise king in the Korean political history.

Key words : King Sejong Great, the filial behavior of King Sejong, Tae-jong, the mother of King Sejong, the prince royal - Yanglyoung. the prince - Hyolyoung, a selection of wise prince, brotherly love, funereal rituals.

184 『윤리교육연구』 제30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3. 4), pp. 157-184

논문 투고일: 2013년 3월 25일

심사 완료일: 2013년 4월 9일

게재 결정일: 2013년 4월 17일